

단국대학교 2019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및 가이드답안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십시오. (600자 내외)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200자 내외)(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20점)

[가] 규범 위반과 관련된 내적·외적 통제가 약화되거나 해체되었을 때 개인이 일탈 및 범죄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따라서 일탈 및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 및 신념 등의 내적 통제나 사회 제도 및 법률 등의 외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제 이론을 반영한 하나의 예로 깨진 창문 이론을 들 수 있다. 깨진 창문 이론은 창문 하나가 깨진 것과 같은 사회의 작은 무질서를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무질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불관용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낮은 수준의 일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좀 더 중대한 범죄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 뉴욕에서는 깨진 창문 이론을 적용하여 지하철 범죄를 크게 줄인 바 있다. 1980년대 뉴욕에서는 연간 90만 건이 넘는 강력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그중 90% 이상이 지하철 범죄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깨진 창문 이론을 적용하여, 지하철의 모든 낙서들을 지우고 무임승차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 사소한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2년 만에 지하철 강력 범죄가 75% 가까이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제 이론을 적용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하철 부정 승차에 대해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물리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액수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또는 학생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에게 일탈 및 범죄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위주의 대책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필요하다.

출처 : 구정화 외, 『사회·문화』

[나] 벤담의 패놉티콘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다. 국내에서도 번역이 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 이를 소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푸코에게 있어서 패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감옥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를 체화한 건축물이었고,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고 동시에 이런 변화를 추동한 것이었다. 이는 또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패놉티콘은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성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는 푸코 철학의 정수를 잘 보여 주는 더없이 좋은 실례였다.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진 반면에 처벌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감옥이 공장, 학교, 군대의 막사, 병원과 비슷하고, 이것들이 다시 감옥을 닮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일까?” 라는 푸코의 논평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거대한 패놉티콘 즉 감옥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푸코가 함축하는 바였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인문학자의 범주를 넘어서 지식인 일반과 대중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 푸코의 영향력은 그가 패놉티콘을 벤담이라는 개인의 실패한 에피소드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 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했

다는 데에 기인했지만, 그의 영향력이 큰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것은 패네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 혁명 시대의 ‘전자 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쇄 카메라, 신용 카드와 같은 전자 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라는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고,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졌다. “잠자고 있건 깨어 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조지 오웰의 암울한 “1984년”에 등장한 ‘빅 브라더’의 이미지는 바로 정보 사회가 가져온 ‘전자 패네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출처 : 이관규 외, 『독서와 문법』

[다] 국가가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본래부터 존재해 온 실체이든, 국민의 필요 때문에 합의된 계약에 따라 탄생한 발명품이든 간에, 현실에서 국가는 합법적 권위와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법률 자체가 가진 합법성과 그것을 집행하는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로 강조된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도덕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도덕, 비도덕과 무관한 편의주의적인 법률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비도덕적인 법률도 나타나고는 한다. 시민의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회는 치안이 확실히 보장되고 모든 절차와 관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분명히 살기 편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맹목적으로 모든 법률에 대하여 복종만 하는 사회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고 국가 공동체가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의 복종이 필수적이지만, 시민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항상 국가의 법이나 명령이 타당한지를 점검해야만 한다. 개인의 양심과 사회 전반의 정의감에 비추어 보아 도저히 승복할 수 없거나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게 잘못된 법률일 때, 법률에 대한 복종 의무를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이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법률이나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여기는 행위가 종종 나타났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의 대표적 사례로는,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영국 정부의 부당한 세금 징수 정책에 항의하고자 비폭력 저항 운동의 하나로 납세 거부를 선언했던 간디나 불의한 인종 차별 정책을 시행한 미국 정부의 법률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시민운동을 펼쳤던 킹 목사 등이 거론된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저항인 경우도 있고 시민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 고의로 행하는 위법 행위 모두가 시민 불복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공익성, 공개성, 자발성, 비폭력성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시민 불복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 : 변순용 외, 『생활과 윤리』

[문제 2] [가]를 토대로 [나]와 [다]의 주장을 비교하고,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라]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와 이유에 대해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30점)

[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 현상들은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가 얽혀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성적이 떨어진 데에는 몸이 아팠거나, 친구와의 문제가 있었거나, 게으름을 피웠거나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도 운전자의 부주의, 보행자의 부주의, 도로 사정, 교통 신호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듯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원인과 결과 중 무엇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으려고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모금에 참여하였다면 불우 이웃에게 성금을 낸 행동이 결과가 되고, 그러한 행동을 한 원인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치인의 행동을 도덕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불우 이웃에게 성금을 낸 행위가 선한 것이라고 해도, 동기가 도덕적이지 않으므로 그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불우 이웃 돕기를 한 결과 자체가 선한 것이므로 도덕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출처 : 박윤진 외, 『사회』

[나] 결과론적 윤리에서 옳은 행위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최선의 결과란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고 행위 당사자들 모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좋은 것이라 판단되는 그런 결과를 말한다. 결과주의 윤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상의 악을 최소화하고 선을 최대화하고자 하며, 가능한 한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결과론적 윤리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불행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과 만족을 불러오고 쾌락을 증진하는 삶을 도덕적인 삶으로 이해한다. 도덕적인 것이 그 자체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곧 도덕적인 것으로서, 좋음이 옳음을 낳게 된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그 결과이므로, 설사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윤리 규범을 어기게 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만 있다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결과론적 윤리는 이성의 보편타당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결과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출처 : 박효종 외, 『윤리와 사상』

[다] 반면에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옳은 행위란 결과와 상관없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그런 행위이다. 설사 어떤 행위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선사하지도 못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행해진다면 옳은 행위라 여긴다. 이는 행위를 낳은 의지가 선하기 때문이며, 행위자의 의지만이 온전히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의지에 따른 행위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가변적인 행위가 아니라 원칙에 따르는 항상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때로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행해야만 하고, 때로 행복과는 상반된다 해도 도덕적 의무로서 지켜야만 한다. 세상에는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 서로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단지 수단으

로서만 이용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 의무이다. 이런 종류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의무론적 윤리의 대표로 칸트의 윤리론을 꼽을 수 있다.

출처 : 박효종 외, 『윤리와 사상』

[라] 기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앞 철로에 인부 네 명이 작업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네 명의 인부 모두 중상을 입을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비상 철로 쪽을 보니 그곳에는 단 한 사람의 인부만이 작업을 하고 있다. 기차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당신 앞에 기차를 비상 철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는 있다.

출처 : 육근록 외, 『사회』

[문제 3]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과 정부의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40점)

[가] 사회 계층 구조는 한번 형성되면 개인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계층 구조 내에서 개인이 속한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특히 현대 사회와 같은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 개인이 계층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변하거나 계층 구조의 모습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 낮은 계층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이처럼 계층 구조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적 위치가 다른 위치로 옮겨가는 현상을 사회 이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 이동의 모습은 전근대 사회보다 근대 사회에서, 농촌 사회보다는 도시 사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 원활한 사회 이동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의욕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일반적으로 사회 이동이 활발한 사회는 비교적 공평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나 서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즉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낮은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의욕이 낮아진다. 이것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출처 : 이진석 외,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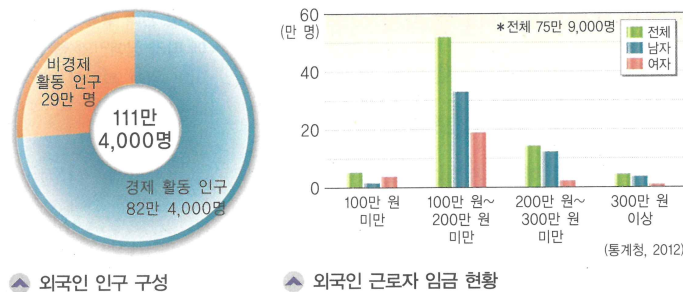
[나] 1990년 75.4%였던 중산층의 비중은 2000년 71.7%에서 2010년에는 67.5%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은 1990년 7.1%에서 해마다 늘어 2010년에는 12.5%가 되었다. 고소득층이 같은 기간 17.5%에서 20%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증가 폭이 훨씬 크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것은 빈곤 탈출률의 감소와도 연결된다. 빈곤 탈출률은 이전 연도에는 빈곤층이었지만 다음 연도에 빈곤에서 벗어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탈출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0년에 빈곤층을 벗어나는 비율은 48.9%였지만 해마다 줄어 2007년에는 29.0%까지 떨어졌다.

특히 계층 이동의 수단이었던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분위(상위 20%) 소득 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56만 1,400원으로 1분위(하위 20%) 9만 1,400원의 6.14배에 달했다.

출처 : 강운선 외,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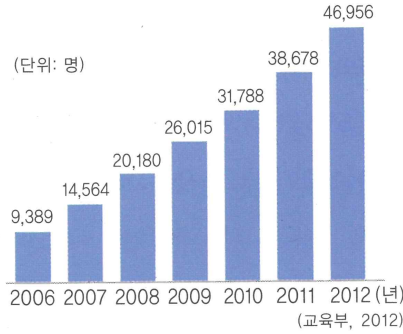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 경제 활동 인구는 약 82만 명으로 전체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2,511만 7천 명) 중 3.2%를 차지한다. 이들 중 임금 근로자의 75%가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 참고로 2012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43만 원이다.



출처 : 신형민 외, 『사회·문화』

중국에서 온 A는 지난 1년간 5곳이 넘는 학교의 문을 두드린 끝에야 겨우 입학할 수 있었다. ……(중략)……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한 채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는 A를 학교에서도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결국 A는 학교를 그만두고, 종일 집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88%이다. 그러나 중학교로 올라가면 40%대, 고등학교에 이르면 20%대로 급락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 수 추이

출처 : 육근록 외, 『사회』

2011년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재학생 수(명)	24,701	5,260	1,827	31,788
학업 중단자 수(명)	97	83	35	215
학업 중단율(%)	0.39	1.58	1.92	0.68

출처 : 설동훈 외, 『사회』

집단 따돌림으로 생긴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주택가에 불을 지른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출생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되었으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

(단위: %, 복수 응답)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다른 아이와 외모가 달라서	부모가 외국 출신이라서	다른 아이와 태도나 행동이 달라서	기타
35.3	26.5	20.6	20.6	14.7	2.9

출처 : 이진석 외, 『사회·문화』

[라] 완득이는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지능이 낮은 삼촌과 함께 살고 있다. 완득이는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남들과 다른 피부색을 가졌으며 공부도 못하는 문제아지만 싸움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출처 : 이진석 외, 『사회·문화』

지하철에서 외판을 하며 날품팔이를 하지만 한때는 춤을 무척 잘 추었던 난쟁이 아버지, 아버지의 춤에 푹 빠진 삼촌 남민구와 함께 옥탑방에서 살아가면서도 절대 기죽지 않던 완득이의 인생은 담임 선생인 똥주의 등장과 함께 엉뚱하게 꼬이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몰래 불법 체류 노동자를 돕던 똥주의 도움으로 완득이는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중략)……

민구 삼촌이 씨익 웃었다.

“그 사람,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지, 거기서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가, 가, 각설이들도, 춤 배웠구나.”

삼촌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도 아니던데요.”

“보내 줘지.”

“왜요?”

“카바레에서 춤추는 걸 이해 못 했어.”

“그게 다예요? 그랬다고 보내 줘요?”

“숙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팔려 온 하녀 취급하는 게 싫었다. 내 부인이 아니라, 자기들 뒤처리나 해 주는 사람으로 알더라. 가는 모습 봤는데, 못 잡았다.”

……(중략)……

“저기요!”

그분이 돌아봤다.

“다음에는, 존댓말 쓰지 마세요.”

“네.”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식한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지 모르겠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 잘 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과 결혼해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면서 아버지 나라가 그분 나라보다 조금 더 잘산다는 이유로 큰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한국인으로 귀화했는데도 다른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는 그분이, 내가 버렸는지 먹었는지 모를 음식만 해 놓고 가는 그분이, 개천 길을 내려간다. 몸이 움직인다. 내 몸이 미쳐서 움직인다. 저 꽃분홍색 술이 달린 낡은 단화 때문이다. 나는 내려가는 그분에게 달려갔다.

“주세요.”

나는 반찬 통을 획 낚아챘다.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았다.

“따라오세요.”

나는 앞장서서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시장 속으로 들어갔다. 품 나게 백화점은 가 줘야 하는데 내 월급으로 체육관비까지 내야 하니 할 수 없다. 나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신발 가게로 들어갔다.

출처 : 한철우 외, 『문학』